

## 0830(화) 에스겔 19-21장 나는 <알고> 있는가?

<(너희는)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>

에스겔서에서 70여 번이나 반복되는 말입니다.

‘알다(히. 안다)’는 지적인 깊이 아니라 참된 깊이,

<하나님을 아는 능력>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.

이스라엘은 눈앞의 일상, 현실정치, 국제정세에 매몰되어

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(21:8-27).

그들의 무지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(20장).

이스라엘은 창조주,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

그저 종교적 영역으로 제한하고, 현실에서 배제했습니다.

하나님 인식이나 언약백성으로서의 자의식도 없었습니다.

선물로 주신 율례와 안식일의 귀함도 알지 못했습니다(20:11,16).

언약 백성의 특징과 특권 모두를 상실한 것입니다.

하나님의 인내는 참으로 오랜 것이었습니다.

가나안 입성도 전에 주님은 백성들을 이미 아셨습니다(20:8).

심판과 멸망은 그때로부터 <일시정지>되어 온 것입니다(20:23).

하나님은 늘 상 제멋대로이고 고집스러운 모습들에

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(20:25-26).

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오래 참아 오셨습니다(20:9,14,22)

그러나 이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의의 심판을 통하여

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드러내실 것입니다(20:44, 19/21장).

더 이상의 연장은 없을 것입니다(21:7, 32).

출애굽 백성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듯이,

포로기 이후의 회복도 모두에게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(20:36-38).

나는 하나님을 잘 <알고> 있습니까?

❶ 현존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발효됨을 알고 있습니까?

❷ 하나님의 율례를 준행하면 <삶을 얻게> 됨을 알고 있습니까? (20:13, 21)

❸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까?